

# 치사율 높은 아프리카돼지열병(ASF) 예방 및 긴급 대응 수칙

김태근 기술지원국 재해대응과 063-238-1054



**의심축 발견 시 농림축산검역본부 즉각 신고 1588-9060/4060**

최근 중국과 벨기에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(ASF)이 발생·확산됨에 따라 국내 유입 예방과 국내 방역 추진사항 등의 관리 대책 점검에 속도를 내고 있다. 아프리카돼지열병을 예방하기 위해 정부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고, 농업인이 지켜야 할 예방대책 및 긴급 행동 수칙은 무엇인지 알아보자.

## 전염력이 강한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위험성

**아프리카돼지열병(ASF, African Swine Fever)**은 돼지에만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질병(제1종 가축 전염병)으로 아프리카에서 시작되었으며, 2007년 이후 동유럽과 러시아 지역의 사육돼지와 야생 멧돼지에서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.

**이 바이러스성 질병**은 아직까지 국내에는 전파된 적이 없지만 외국 여행자나 외국인 근로자가 휴대·반입하는 오염된 돼지 생산물을 통해 질병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.

**아프리카돼지열병**은 폐사율이 최고(급성형) 100%에 이르며 전염력이 강한데다 전파가 빨라 양돈 산업 전체에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줄 수 있다.

**아프리카돼지열병**은 건강한 돼지가 바이러스에 감염된 돼지의 침, 분비물, 오줌, 분변 등과 직접 접촉할 때, 환경에 저항성이 강한 아프리카돼지열병바이러스가 오염된 차량, 사료, 도구 등 매개물에 간접 접촉할 때 그리고 감염된 물렁진드기(Omithodoros spp.)가 돼지를 흡혈할 때 전파된다.

**감염 이후 4~21일간의 잠복기가 지나면** 아무런 전조 증상 없이 돼지가 옆으로 쓰러지면서 폐사하거나 **(심급성형)** 42℃ 이상의 고열과 귀·복부·뒷다리의 청색증이 보이며, 고름 또는 점액 모양의 눈곱과 콧물 등의 증상 **(급성형)**을 앓게 된다. 증상을 보인 이후 회복된 것처럼 보이더라도 재발하여 폐사하는 경우가 많다. 또 기침을 동반한 간질성 폐렴과 관절 통증에 시달리다 찢뜩거림 증상이 나타나거나(보통형), 발육 불량과 피부 궤양 **(만성형)** 등을 보인다. 만성형에 걸린 돼지도 몇 달 후에 결국 폐사하고, 한번 감염되면 지속적으로 증상이 나타나 살처분할 수밖에 없으므로 사전 차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.

## 정부의 전방위적 조기 대응 및 대책마련

**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에서** 가장 우선시되는 것은 국내 유입 봉쇄와 농장의 엄격한 차단 방역, 발생 시 조기 근절을 위한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이다. 이에 정부는 국내 유입 예방을 위한 출입국관리 등 공·항만 국경 검역을 강화했다. 또한 국내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할 것을 대비해 유·관·기·관, 지방자치단체와 농·가, 계열화 사업자에게 매년 가상 방역 훈련을 하고, 발생 즉시 위기 경보를 발령하는 등 신속대응 체계를 구축했다.

**양돈 농가는** 질병 확산 및 조기 근절을 위해 감염 증상을 빠르게 인지하여 초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임상 증상을 숙지하여야 한다. 이를 위해 정부는 책자 및 포스터를 활용한 교육 및 홍보 활동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한 관심을 꾸준히 높여 왔다.

**정부 차원에서** 아프리카돼지열병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한 국경 검역·국내 방역 등 예방 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, 모든 양돈농가를 관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. 그러므로 양돈농가와 축산관계자의 적극적인 협조와 신고가 뒷받침되어야 한다.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비상 행동 수칙을 숙지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모두가 적극 대응할 때이다.

## 아프리카돼지열병 농장 유입 방지 및 조기 근절 행동 수칙

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농업인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. 양돈 농가에서 지켜야 할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 및 비상 행동 수칙은 다음과 같다.

### ✓ 농장의 엄격한 차단 방역


양돈농가는 축사 내외 소독 실시, 농장 출입 차량과 출입자에 대한 통제, 야생 멧돼지와 접촉 금지 등 차단 방역을 철저히 이행한다.

### ✓ 돼지에 열처리 되지 않은 잔반 급여 금지

남은 음식물 사료를 급여할 경우에는 열처리(80°C, 30분)한 후에 급여한다.

### ✓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 여행이나 방문 삼가기

중국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에 대한 여행을 자제하고 부득이 방문시에는 축산 농가와 발생 지역 방문을 금한다.


 출입국 시 반드시 검역본부 신고 : 1670-2870

### ✓ 외국인 근로자의 축산물 반입 금지

양돈 농가·양돈 산업종사 외국인 근로자는 자국의 축산물을 휴대하거나 우편 등으로 국내에 반입하지 않는다.

### ✓ 아프리카돼지열병 임상 증상 숙지 및 이상 상태 파악시 즉시 신고

양돈 농가는 매일 임상 관찰을 실시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축 발견시 즉시 방역기관에 신고한다.

 의심축 발견 시 농림축산검역본부 즉각 신고 : 1588-9060/4060

